■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오페라 분야) 3차 실연심의 회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오페라 분야)
ㅇ 회의일시 : 2025년 4월 17일(목)~2025년 4월 18일(금) 11:00~19:00
ㅇ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실험무대 등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태암, 손수연, 이효진, 임기현, 임수연, 임주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공연예술 가운데 창작오페라 분야를 지원하여 신작을 발굴하는 것은 서양 음악과 드라마라는 매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파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2025년 올해의 신작(후보) 중 무대 공연 지원작으로 선정한 총 4개 작품에 대한 실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올해의 신작(후보) 실연 심의의 기준은 작품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기대효과(20%), 관객 평가(20%)입니다. 60분간의 실연 이후, 제작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공연으로 파악하지 못한 지점까지 다면적으로 살피고자 했습니다. 이번 실연은 기본적으로 낭독 형식으로 공연됐으며,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수에도 제한 기준을 두어 최대한 동일한 조건 안에서 이뤄진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심의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 부분은 기획 및 소재가 창의적이며 설득력이 있는가, 포트폴리오를 통해 창작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실연의 결과는 1·2차 심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였는가, 본공연으로 발전할 경우 예술적 완성도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등의 심의 기준 충족도와 사업 지원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의 정도입니다.

한국 창작오페라는 올해 탄생 75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는 오페라 양식을 무대 위에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난 75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창작오페라에는 한국어와 서양 음악의 조화, 소재 개발을 위한 노력, 공연예술로서의 완성도, 마케팅 전략 등이 요구됐습니다. 이번 실연 심의에서는 여기에 더해, 한국 오페라에 대한 개념의 재검토가 이뤄졌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차 서류 심의에서부터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실연 심의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오페라가 등장하기도 하고, 한국 오페라의 전형적 특성을 보이는 작품을 보기도 했습니다. 몇몇 작품에 대해서는 오페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심의위원 간에도 여러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작품성과 사업의 지원 목표에 가장 가깝게 부합하는 2개 작품을 선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음을 미리 일러드립니다.

심의위원단이 이번 심의에서 각각 60분간 실연한 4편의 작품들에 대해 가장 무게를 두었던 평가 기준은 작품성 및 이 사업에서 실연 심의 과정을 거치는 의의의 파악입니다. 먼저 작품성에 있어, 지난해 1, 2차 심의 때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작품들이 우선하여 선정됐습니다. 앞선 지난해 심의를 돌아보면 완성도를 예측하게 하는 지원작이 있었는가 하면, 과연 오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내는 지원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연에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물을 선보이는 지원단체들을 보면서 실연 심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실연 심의는 평면 상태였던 작품이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매우 주요한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실연 심의를 준비하고 임하는 태도가 선정 요인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낭독 실연이라는 공통적인 조건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창작 의도를 살리고자 했는지가 공연의 완성도 및 작품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음악적인 부분의 미흡함으로 인해 선정작을 2개 작품으로 결정하기까지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투표와 토론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최종 2개 작품을 선정하기는 했으나 동시대 한국 오페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과 날카로운 지적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한국 오페라 생태계에서 본 사업의 지원 예산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오페라 단체와 역량 있는 창작자들이 큰 노력을 기울여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연 심의를 끝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창작오페라에서 2025년의 신작을 찾는 긴 여정은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선정된 작품들이 우수한 한국 오페라로 거듭나기를 기다릴 순서입니다. 매해 진행한 사업이 주는 의미는 다를 것입니다. 올해는 오페라라는 서구의 양식을 21세기 한국에서 재현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과제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페라가 진정한 우리의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당위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의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모쪼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위원 일동